

# ‘첫사랑’의 후기근대적 운명과 노스텔지어에의 ‘차가운’ 열정

정수남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사회학 전공  
snjoung75@gmail.com

- I. 머리말
- II. 낭만화된 첫사랑: 근대화의 이중성
- III. 첫사랑의 후기근대적 운명
- IV. 맺음말: ‘늙은’ 베르테르의 고뇌

## I. 머리말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떠올려보는 기억의 대상이 있다. 매우 강렬해서 깊이 각인된 사건, 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된 사건이기에 때론 가슴 쓰러하고, 때론 애뜻한,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타자, 바로 ‘첫사랑’이다. 현대사회에서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법한 공통의 경험인 것처럼, 그리고 과거의 ‘순수한 한때’를 상징하는 신성한 시공간으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첫사랑이 현재의 사랑이나 마지막 사랑일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다.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대중이 경험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사랑 담론에서 첫사랑은 여전히 중요한 감정자본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이것이 대중문화산업의 요청에 의해 소비의 대상으로 자주 전유된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첫사랑은 사회학적 탐구 대상으로 논의될 만하다.

소년이나 청년기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통과의례와 같은 첫사랑은 신성한 대상과 대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신도들의 애절함에 빚낼 수 있다. 멀리는 1953년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서부터 가깝게는 영화 〈김종욱 찾기〉(2010), 〈건축학개론〉(2012), 웹툰 〈사춘기 메들리〉(2013), 드라마 〈응답하라 1997〉(2012, 이하 〈응칠〉), 〈응답하라 1994〉(2013, 이하 〈응사〉), 그리고 최근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소년소녀, 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이야기는 ‘한때의 순수함’ 혹은 ‘잃어버린 진정성’을 되살려주는 기억작업(working for memories)을 요청한다. 한 예로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의 흥행 직후 어느 소셜데이팅서비스 사이트가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첫사랑에 대한 정의를 ‘순수함’에서 찾았다고 한다.<sup>1)</sup>

첫사랑은 강렬한 종교적 체험처럼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깊이 각인되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 첫사랑이 유독 향수의 대상이

---

1) 이음소시어스. 2012. 4. 3. (<http://m.newswire.co.kr/newsRead.php?no=620671&ected=>)

되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첫사랑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분명 심리 내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첫’ 경험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가져다주는 새로움, 충격, 신선함, 애뜻함, 고통, 아픔, 아련함, 설렘 등과 같은 심리 내적 경험은 뇌리에 깊이 새겨져 유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뇌신경이 동일한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사랑을 심리 내적인 차원으로 환원해서 설명하기에는 첫사랑이 왜 다른 감정이 아닌 유독 순수함, 애뜻함, 설렘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감정은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상실, 소외, 이별에서 비롯된 사후적 구성감(構成感)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현재적 아쉬움과 애잔함이 바로 그러한 사후적 구성감을 이루는 감정들이다.

이 같은 첫사랑에 대한 향수리는 구성된 감정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왜 다시 기억해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왜 아련해하고 때론 아파하는가를 규정하고 범주화하고 일정하게 제약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기억작업을 통해 첫사랑을 재구성하고 이를 낭만화하거나 이상화하려는 작업은 특정한 사회역사적 맥락과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전통적인 남녀관계에서 ‘첫사랑’이라는 관념이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었다면, 근대적인 남녀관계에서 첫사랑은 잠재적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친밀성의 근대적 전환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사회분화와 개인성의 증대가 가져온 ‘연애’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 남녀 간의 상호작용 형식의 근대적 변화는, 이른바 사랑이라는 삶의 내용을 연애라는 특정한 형식으로 창출해냈다.<sup>2)</sup> 여기서 중요한 모티프는 로맨스이다. 통상적으로 낭만적 사랑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비합리적이고, 이윤 지향적이기보다는 이윤이 없고, 공리주의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며,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sup>3)</sup> 이처럼 로맨스가 지닌 탈세속적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순수함을 상실하게 될 경우 고통스러운 감정적 격랑을 겪게 된다. 첫사랑이 로맨스와 결합할 수 있는 속성은 바로 순수함과 상실감을 동시에 수반하는 속성에서 기인한다.

2) 이는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의 형식사회학적 논의를 차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게오르크 짐멜의 『개인법칙』(김덕영 역, 길, 2014), 제5장 「보편법칙에서 개인법칙으로」를 참고할 것.

3) 에바 일루즈 저, 박형신·권오현 역,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이학사, 2014), 19쪽.

인간의 역사에서 정열적인 사랑 혹은 낭만적인 사랑처럼 개인들 간의 ‘호감’, ‘성적 매력’을 매개로 교감하는 방식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특수한 역사적 산물이자 근대문화의 특성이다. 서구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의 탄생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로맨스나 이상화된 사랑은 18세기 이후 서구 부르주아 핵가족에서부터 비롯된 사회역사적 산물이다.<sup>4)</sup> 첫사랑이 설레고 강렬하고 정신을 빼놓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근대 이전에 남녀가 교감했던 형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교감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즉, 낭만적 사랑은 순전한 개인 대 개인의 결합으로만 구성되는 신성한 시공간적 체험이자 은밀하게 그들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은 ‘개별성(individuality)’이라는 근대성의 문화적 특징과 조우한다. 이른바 첫사랑은 근대적 자아가 독자적으로 체험하는 ‘개인법칙’의 실현이다.<sup>5)</sup> 첫사랑은 한 개인이 독립된 객체로서의 자율성을 실천하는 체험이자 이것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내적 상실감을 체험하게 되는 이중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떠올릴 때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은 설렘과 상실감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애뜻함 일 것이다.

첫사랑이 애뜻한 기억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즉 향수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 첫째, 상호 호감을 갖는 상대와의 첫 만남이 내외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조건이다. 생리적 욕구와 번식만을 위해 강제로 맺어진 관계가 일반적인 조건에서 첫사랑은 발생하기 어렵다. 둘째,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다.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시공간적 여유와 사회적 제약으로부터의 일정한 탈출이 전제될 때 보장될 수 있다. 셋째,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문제로서 기억이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으로부터 주체적으로 도출되느냐 아니면 문화산업이라는 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되느냐 하는 쟁점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은 오늘날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가. 만약 충족되어 있지 않거나 조건이 달라졌다면 첫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4) 앤서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새물결, 1999), 83-93쪽.

5)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길, 2014), 267쪽.

재구성되고 의미화되고 있는가. 이 글은 이 시대 첫사랑의 힘겨움에 대한 논의이자 첫사랑에 대한 기억작업이 처한 사회적 조건, 그리고 첫사랑을 기억해내는 방식의 후기근대적 전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기억의 재구성 작업이 노스텔지어의 상업적 이용과 결합하여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첫사랑은 점차 개인의 주체적인 기억작업에 의해 낭만화되기 어려운 운명에 놓여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힘겨움은 후기근대적 조건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를 통해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주체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지닌 감정사회학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첫사랑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대표적인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를 활용하여 주요 논거로 제시할 것이다. 자료 선정은 필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자료를 활용하고자 했다. 우선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을 가장 잘 표현한 대중가요를 선택했다. 연인들 간의 사랑을 다룬 상당수의 대중가요는 이별 후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서사나 첫사랑 자체의 설렘을 표현한 경우가 많은 반면, 보다 명확하게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서사는 그리 많지 않다. 첫사랑은 옛사랑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첫사랑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가요만 택했다. 그리고 노래가 발표되었을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곡과 가수의 노래를 택했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관객과 시청률 및 당시 많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던 텍스트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경우 청년세대를 주인공으로 한 최근작들 중에서 문학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소설을 택했다. 수상작이라고 해서 대중성을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소설에 함축되어 있는 시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 II. 낭만화된 첫사랑: 근대화의 이중성

### 1. 첫사랑 향수의 근대적 조건: 속도와 기억작업

첫사랑을 낭만화하는 작업들은 대중문화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특히 소설, 대중음악 그리고 로맨스 영화는 첫사랑을 줄곧 소재로 활용해왔다. 일찍이 서구의 경우 1860년 투르게네프(I. S. Turgenev)의 자전적 소설 『첫사랑』에서 첫사랑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전에 없던 감정적 강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녀 앞에 서면 나는 뜨거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불태우며 녹여버리는 그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나로서는 불타며 녹여버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첫사랑이 주는 이러한 강렬함과 의미는 근대 대중문화의 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일 정도로 인간의 삶에 커다란 파급력을 가져다준다. 첫사랑의 강렬함은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적 생체기와 같아서 문화적 소재로 자주 활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첫사랑은 현재의 사랑이 아니라 이별 뒤에 오는, 실패한 사랑 뒤에 주체가 다시 그때를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은 갈망, 즉 그리움과 향수이다. 또는 실향민이 다시는 갈 수 없는 고향을 떠올리며 아련해하는 내밀한 고통처럼 첫사랑은 그와 같은 아픔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처럼 첫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일종의 감정작업(emotional works)을 요구한다. 과거의 재구성 여부는 현재의 감정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작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인지틀(혹은 담론)에 따라 재구성 방식과 의미 도출 방식이 다양하게 표출된다. 다시 말해, 감정작업은 한 시대의 집단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감정적 분위기, 윌리엄스가 말하는 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감정은 행위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동인으로서 담론이 지닌 권력효과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담론은 감정적 동인에 의해 구축된다.<sup>6)</sup> 담론이 존재구속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6) 이안 버킷(Ian Burkitt) 「복합감정: 감정경험의 관계, 느낌, 이미지」, 책 바바렛 엠크,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287-288쪽.

감정 또한 사회적 구속성을 갖는다. 동시에 감정은 존재구속성에 균열을 가하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요컨대, 감정작업은 개인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며, 그로 인한 담론적 효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첫사랑은 어떠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낭만화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첫사랑에 대한 향수'(이하 첫사랑 향수)를 구성하는 담론은 어떤 구조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첫사랑 향수를 가장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킨 계기는 아마도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시골 소년과 서울에서 온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성인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내러티브는 오늘날 첫사랑 향수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순수했는지 여부는 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들을 바라보고 구성하는 성인 작가 혹은 독자가 결정한다. 순수함은 아이들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삶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성인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유년 시절을 신성한 시공간(순수함과 자연)적 체험으로 재구성해내는 내러티브는 노스텔지어의 전형적인 감정구조이자 감정작업의 산물이다. 노스텔지어는 고향과 고향의 과거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감정이다. 임철규에 따르면, 노스텔지어는 “귀환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욕망”이라는 점에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귀환을 향한 욕망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향은 그때의 고향 모습 그대로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환상을 통해 자기 위안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sup>7)</sup> 첫사랑 향수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순수했던 체험으로 상상하면서 순수함을 상실한 채 세속적인 관계에 익숙해져가는 현재의 자신을 위로하려는 감정구조이다.

우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근대화는 첫사랑에 대한 향수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낭만적 사랑이 서구의 근대사회 출현과 조우하듯이, 한국 사회의 첫사랑 향수 또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이촌향도, 대도시적 삶의 보편화, 대중문화

7) 임철규, 『귀환』(한길사, 2009), 16-17쪽.

산업의 확산, 서구적 로맨스 담론의 유입 등은 전통적 규범과 질서의 파괴이자 소멸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미완의 형태로나마) 근대적 ‘개인’의 확산을 가져왔다. 전통적 유대의 쇠퇴와 개인의 등장은 근대화의 필연적인 숙명이기도 하지만 첫사랑은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나 가능해진다. 마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개발독재의 여파로 인해 전통과 과거가 지워지자마자 꿈틀거리며 솟구치는 감정이듯, 근대화는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근대화는 첫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근대화의 존재론적 조건은 ‘개별화’의 가망성(chance)에 있다. 개별화는 전통적 규약의 해체와 전체주의적 공동체 질서 및 규범의 쇠퇴 이후에 도래하는 근대세계의 새로운 삶의 원리이다. 짐멜(Georg Simmel)은 이러한 근대성의 특징을 ‘액화’ 개념으로 명명했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바우만(Zygmunt Bauman) 또한 액체 또는 유동성 개념으로 오늘날 후기근대성의 특징으로 내세운다.<sup>8)</sup> 개별화는 근대성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이기도 하다. 끊임없는 접촉과 단절이 생성되는 유동적인 근대사회에서 자아의 발견 혹은 자아정체성 형성은 개인들에게 집요하게 요구된다. 첫사랑 향수는 근대사회의 유동적 성격(유동성)과 자아정체성 구축(고정성)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를 현재의 개인이 매듭짓는 특정한 사건으로 작용한다. 즉, 불안정한 사건으로 존재했던 첫사랑이 현재의 시점에서 안정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인가? 거기에는 독특한 시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대체로 ‘자신이 직접 살았던 고향’이거나 ‘시골’이고 시간적으로는 ‘유년 시절’이다.

먼저 첫사랑 향수의 공간적 차원을 살펴보자. 첫사랑 향수는 번잡하고 화려한 도시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골 혹은 아직 근대화의 세례를 덜 받은 중소도시를 무대로 펼쳐진다. 앞서 언급한 소설, 드라마, 웹툰 등에서 설정된 공간도 농촌 풍경의 시골 아니면 근대화의 주변부인 서민이 사는 동네이다. 따라서 여기서 ‘시골’은 농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된 시골’, 즉 거대한 도시화의 흐름에 떨려갈 수밖에 없는 ‘도시화된 시골’이다. 하지만 시골은 자연 그 자체가 내뿜는 원시성·

8) 지그문트 바우만 저, 이일수 역, 『액체근대』(강, 2009).



순수성·안정성·신성성의 이미지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첫사랑 향수의 공간으로 종종 채택되곤 한다. 다음 송경동의 시 〈읍내 형수〉(2006)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소전으로 가는 길목 / 이십 년째 잡화를 하는 신세계슈퍼 이층에 / 단란주점을 낸 소연이가 / 내 첫사랑이다. 지금은 /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을 냈지만 / 장터 포주집 아들로 / 내가 성, 성하며 쫓아다니던 / 어릴 적엔 순 건달로 내게 그 짓은 / 콩알을 넣고 해야 제 맛이라고 가르쳐주던 / 덕기형과 결혼한 그 친구가 / 내 첫사랑이다. 나와 내 친구와 / 또 한 친구까지를 관통하고 다녀 / 지금껏 팽팽한 삼각을 유지해 주는 / 그 괴명 같은 계집

장성 어느 재에서 한 번만 주라고 / 한 번만 주라고 탕탕 부은 내 보람을 / 개새끼야 개새끼야 하며 밀쳐내던 그 / 콩닥숨 단내가 탕자내음 같던 가시내 / 왜 남들은 다 쥐놓고 나만 안 주냐고 / 열두 시간 비지땀 애걸해도 / 니가 봤냐 니가 봤냐며 / 꼬막처럼 단힌 속살 열지 않던 / 짜디짠 / 별교 가시내

그러나 세월이 흘러 / 이제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닌 / 내 첫사랑. 선거 때면 / 팔마니들 동원도 환뫼하고 / 재 너머 읍내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 누구누구의 신장개입 구상까지도 / 환히 꿰는 영민한 읍내 형수 / 찾아가면 윈 없이 술 내주고 / 처진 가슴 부여 날 꼬일 줄도 아는 / 그 회한한 내 첫사랑

지금도 흥계리 그 외등은 / 별짙게 타고르고 있을까 / 장미꽃 넝쿨처럼 가시를 치며 담을 넘던 / 세 자매의 웃음소리 / 가쁜 숨쉬며 나는 어디쯤 달려 왔는가 / 굉음처럼 / 지나가버린 세월 / 긴 밤내 썼던 편지를 쪽쪽 찢어 날리던 / 그 철로변 꽃잎들은 다 날아갔을까 - 송경동, 〈읍내 형수〉 -

이 시에 설정된 공간은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지방 소도시, 즉 평범한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읍내이다. 이 시에서 끝내 이루지지 않은 첫사랑에 대한 애뜻함과 동시에 “굉음처럼 지나가버린 세월”로 인해 잊혀질 것 같은 첫사랑에 대한 아쉬움은 읍내라는 안정적인 공간에 의해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시에서 읍내는 첫사랑 향수의 본원지이자 순수한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역설적이게도 첫사랑은 근대화 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정작 첫사랑 향수가 펼쳐지는 공간은 시골과 같은 안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공간으로 설정된다. 이처럼 첫사랑 향수가 자연과 부합하여 이상화되는 것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과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적 삶에 대한 자아의 성찰적인 기억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향수는 현재와 과거와의 거리감을 전제로 하지만, 이 거리감은 주체가 자신의 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유년 시절’이라는 시간적 차원이다. 여기서 어린 시절은 문화적 차원에서 특유의 상징성을 갖는다. 근대적 의미에서 유년기는 순수함·천진난만함·깨끗함·아름다움·순결함으로 상징화된다.<sup>9)</sup> 첫사랑 향수가 줄곧 ‘어린 시절’이라는 시간성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시골이라는 안정적인 공간 이미지와 함께 어린 시절이라는 순수한 시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노스텔지어적 시간의식은 “보다 충만했던 과거의 어떤 시간 혹은 배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자, “이전의 시대를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보다 더 매혹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과거의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결정화함으로써 이상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다.<sup>10)</sup> 앞서 언급했듯이, 첫사랑이 은밀한 흥분과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아련하게 다가오는 것은 성스러운 시공간을 접하는 이중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즉, 성스러운 경험은 흥분을 유발함과 동시에 그 실재에 이를 수 없는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첫사랑은 성스러운 경험이자 성스러운 것의 상실이라는 이중적 경험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체험하는 속도와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의 성찰성, 즉 기억작업과의 변증법적 결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적 개발근대는 과거의 실재 혹은 흔적을 제거해나갔으며, 속도의 경제학은 과거를 낭만화할 수 있는 여유와 기억작업을 점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절에서 논하듯이, 근대화는 역으로 이러한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근대화에 따른 개인화와 경제적 풍요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기억작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1970년대 압축성장과 1980년대 3저 호황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부흥을 누린 사람들은 근대화로 인해 겪은 과거의 상실감을 낭만화하고 미학화할 수 있는 ‘느긋한’ 현재를 누릴 수 있었다. 여기서 느긋함은 과거를 주체적으로 객관화하고 꾸미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과 문화자본의 결합된 시간효과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느긋함은 근대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감정과 시간

9) 필립 아리에스 저,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새물결, 2003) 제5장 참조.

10) 차승기 저, 윤희동 외 역, 「동양적 세계와 '조선'의 시간」, 『근대를 다시 읽는다』(역사비평사, 2006), 242쪽.

구조는 첫사랑 향수에 대한 담론을 분석해봄으로써 우회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 2. 첫사랑 향수의 시간구조: '느긋한' 현재와 '아련한' 과거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이른바 소비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sup>11)</sup> 경제적 풍요를 발판으로 소비의 민주화를 경험했으며, 실제로 자동차,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으로 대표되는 중산층적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문화적으로는 '네 멋대로 해라' 식의 자유의 시대였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교실이데아'를 외치며 기성담론에 대한 반격을 시도한 시기이기도 했다. 반면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1993년에 개봉했으며, 공일오비, 윤종신, 전람회, 토이 등이 첫사랑이나 옛사랑에 대한 발라드풍 노래를 히트시키면서 인기를 구가한 시절이기도 했다(당시 이 가수들은 모두 20대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한 세대였다). 물론 그전부터 있었던 이문세의 〈소녀〉(1985) 풍의 옛사랑을 그리는 노래나(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1995)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1990년대 대표적인 첫사랑 향수 노래를 분석해보면서 여기에 내재한 향수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첫사랑의 낭만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1995년에 발표된 최백호(1950-)의 〈낭만에 대하여〉는 삶의 허무와 '미련 있음'을 강하게 전달해준다. 이 곡 전체가 풍기는 복고적 사운드는 차치하고서라도 노랫말에 스며들어 있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그야말로 아쉬움과 서글픔으로 채색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은 '잃어버린 것'과 '다시 못 올 것'에 대한 차분한 성찰이 전제된 노래이다. 빠르게 지나가버린 세월 탓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배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노래의 화자는 잃어버린 것을 낭만화할 수 있는 느긋함과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지닌 듯 보인다. 최백호의 첫사랑 향수는 그의 노래 〈첫사랑〉(2013)에서 강렬하게 표현된다.<sup>12)</sup>

11)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제88집(2010).

12) 최백호의 곡 〈첫사랑〉은 분명 2013년에 발표된 노래이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와 시간적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부른 최백호라는 현재 60대 남성의 시점이다. 따라서 필자가 볼 때, 이 노래가 2013년에 발표되었다고 해서 2000년대 후기근대적 감수성을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리엔 바람 너의 야윈 모습 / 흔들리는 청춘으로 힘이 들었지 / 창밖엔 비 밤을 새우는 길 잃은 새가 되어 울었지 / 아쉬워 작은 가슴 어찌지 못해 아팠던 / 이제는 멀어진 세월 그리운 첫사랑 / 처음 그 순간 젖은 눈동자 / 가슴에 생채기로 남았지 / 모든 것이 사라져 지고 / 내 앞엔 너 하나만 서 있었지 / 그리워 찾아가는 너의 집 빈터에 / 이제는 아련한 추억 서러운 첫사랑. - 최백호, 〈첫사랑〉 중 -

이 노래에서 첫사랑은 아련하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첫사랑은 ‘흔들리는 청춘’ 시절의 경험이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냥 아쉽고 힘들고 구슬픈 추억이다. 첫사랑에 대한 전형적인 향수를 보여주는 이 노래는 ‘젊은’ 베르테르가 로테를 향해 가졌던 고뇌처럼 이루어지지 못한 고통스러운 사랑 서사를 보여준다. 이 전형적인 첫사랑 향수 서사에는 과거지향적인 시간의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현재나 미래와의 소통은 단절되고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회귀 서사로 마무리된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앞엔 너 하나만 있는’ 현실이지만 그곳에 찾아가도 정작 ‘너의 집은 빈터’인 허무한 현실 앞에서 화자는 첫사랑을 아련하게 떠올릴 뿐이다. 요컨대, 이 노래에서 표현되는 슬픔이나 고통 또한 화자의 기억작업을 통해 상상된 경험이다.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경험해봤고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떤 서사로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은 ‘느긋한’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서 가능해진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느긋함은 시간의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체가 성찰적으로 과거를 통제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첫사랑을 ‘푹내 가득한’ 그리움이나 ‘아련하고 설레는’ 추억으로 노래한 이문세의 〈조조할인〉(1996)이다.<sup>13)</sup> ‘그렇게 갈 데’도 없고 ‘돈 오백 원’으로 데이트해야 했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황을 순수함으로 그려낸다. 이러한 서사는 현재의 ‘내’가 과거를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암시한다. 즉, 과거를 경쾌하고 순수하고 푹푹하게 구성할 수 있고 ‘가끔씩 그리워’할 수 있는 주체의 기억작업은 현재의 사회적 위상을 반증해준다. 가난 때문에 전전공공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속앓이는 성공한 지금의 위치에서 순수하고 세련되게 낭만화

13) 그 시절 그뻘 그렇게 갈 데가 없었는지 / 언제나 조조할인은 우리 차지였었죠 / 돈 오백 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 단지 조금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 하지만 우리 함께 한순간 이제 주말의 명화됐지만 /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푹내 가득한 첫사랑 / 수많은 연인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추억을 만들겠죠 우리처럼. - 이문세, 〈조조할인〉 중 -

될 수 있다.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 또한 주체의 현재적 사회 위상에 따라 늘 재구성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이다. 가난했던 과거가 풍요롭게 낭만화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자아가 지닌 문화자본의 힘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첫사랑을 풋내 가득한 추억으로 서사화하든 아련하고 아픈 추억으로 서사화하든 첫사랑 향수는 주체의 성찰적인 기억작업의 결과이다.

셋째, 이렇게 의미화된 첫사랑은 좋은 추억으로든 안타까운 추억으로든 그 자체로 신성시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온전하게 머물러 있기를 (주체는) 갈망한다. 이러한 속성은 다음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1989)에 잘 표현되어 있다.

여름날 햇빛 속에 옛 동네를 걸어가다 / 건널목 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지 / 조금은  
변한 듯한 모습 아쉽긴 했어도 / 햇살에 찌푸린 얼굴은 아름다웠지 / 너의 손을  
잡고 말하고 싶어도 / 소중한 기억 깨어질까봐 그냥 다시 돌아서 / 잊어버렸던 첫사랑의  
설레임과 떨어오는 기쁨에 다시 눈을 감으면 / 너는 다시 내 곁에 예쁜 추억으로  
날아들어 / 내 어깨 위에 잠드네. -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

이 노래에서 화자는 첫사랑의 연인을 우연히 보고도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기억이 깨어질까봐’ 돌아선 후 ‘잊어버렸던 첫사랑의 설레임과 떨어오는 기쁨’을 오롯이 간직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첫사랑은 온전히 과거의 공간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신성시되고 현실세계는 세속적인 공간으로 분류된다. 현실이 과거의 공간과 뒤섞이는 걸 경계한다. 첫사랑 향수의 이 같은 신성화는 전람회의 〈첫사랑〉(1997)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더 높게 보이고 더 크게 보였지 / 내가 아닌 마음에 난 눈물을 흘리고 / 잡을  
순 없었지 가까이 있지만 / 숨겨진 네 진실을 난 부를 순 없었지 / 볼 수는 없었지  
마음 깊은 곳까지 / 언제나 한 발 멀어서 그냥 웃기만 했어 / 추운 날이 가면 알지도  
모르지 / 겨울밤의 꿈처럼 어렵듯하겠지만 / 잊을 순 없겠지 낮익은 노래처럼 /  
바래진 수첩 속에 넌 웃고 있었지. - 전람회, 〈첫사랑〉 -

이 노래에서 첫사랑은 화자에 의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당시의 애달픈 감정으로 회고되면서 잊혀질 수 없는 ‘바래진 수첩 속에 웃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그때의 첫사랑은 가까이 있지만 잡히지 않는,

합부로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마음속도 깊이 들여다볼 수 없는, 그래서 한 발 멀리서 웃으며 지켜보기만 했던, 현재에도 때 묻지 않은 존재로 기억될 대상이다. 신성한 것은 가시화되지 않을 때 가장 큰 위력을 발산한다. 이같이 첫사랑에 대한 과도한 상징화는 분명 첫사랑을 낭만화할 수 있고 신성화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감정구조가 뒤따른 결과이다.

넷째, 첫사랑 향수는 주체의 현재적 삶과 소통하면서 현실세계의 세속성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게 해준다. 여기서 기억작업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와 미래를 다잡는 실천이다. 대표적으로 1993년 윤종신의 노래 〈오래전 그날〉에서 첫사랑은 현재의 자신과 적극적으로 교감한다. 여기서 화자는 과거를 현실세계로 적극 끌어들이 현실적 삶을 위로하고 찌든 일상을 정화해주는 도구로까지 활용한다. 즉, 계산적 삶과 세속적인 일상으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기 위해 첫사랑 향수는 현실세계와 공존한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주던 /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 너를 지켜주겠다고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길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 오늘 난 감사드렸어 /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 것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 그리고 지금 내 곁엔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와 잠 못 드는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만이 /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지 / 뭐가 분주하게 약속이 많은 스무 살의 설레임 /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찌들어 갈 때면 /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 윤종신, 〈오래전 그날〉 -

특히 이 노래에서 첫사랑 향수는 화자가 현재를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적 토대로 작용한다. 스무 살에 만난 첫사랑과 나눴던 꿈과 사랑을 지키겠다고 다짐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지금, 화자는 옛 연인의 행복한 현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 또한 바라본다. 화자의 현재 또한 자기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가 곁에 있다는 점에서 첫사랑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일상이 찌들어갈 때’ 첫사랑과 거닐던 학교 앞 거리를 떠올리고, 그때를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로 재구성하면서 첫사랑을 이상화한다. 이러한 기억작업은 화자가 처한 현재의 세속적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실천이자 슬픈 계산의 삶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자기만의 은밀한 유토피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첫사랑을 낭만화할 수 있는 ‘느긋한’ 현재는 1990년대의 정서구조를 함축하고 있다. 첫사랑은 주체의 기억작업을 통해 순수하고 신성한 시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성찰의 대상이었으며, 현재적 삶과도 소통하는 상상적·이념적 채널이었다. 첫사랑은 기억할 만한 것이고 개인의 현재적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체험으로 이상화되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체가 과거를 ‘느긋하게’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조건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점차 소멸해갔다.

### III. 첫사랑의 후기근대적 운명

#### 1. 낭만적 사랑의 최후

1990년대는 크게 두 갈래의 사랑방식이 뚜렷하게 진행된 시기였다. 하나는 개인화와 민주화에 의한 사랑양식의 변화, 즉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시하는 ‘합류적 사랑’의 확산이고<sup>14)</sup>, 다른 하나는 보다 철저하게 자본권력에 포섭되어가는 사랑의 식민지화였다.<sup>15)</sup> 일반적으로 순수함·진정성·낭만성은 수많은 연인이 당위적으로 가져야 할 사랑 이념이고, 친밀성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세기말로 접어들수록 이러한 순수한 감정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점차 물화되고 세속화된 사랑이 친밀성의 공간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첫사랑 또한 더 이상 신화화·낭만화·이상화되지 않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앞서 논의했던 식의 첫사랑 향수에 대한 적극적인 기억작업이 진행되어왔다면, 그 이면에서 이미 첫사랑 향수의 종말을 알리는 징후적

14) 앤서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역, 앞의 책, 115-117쪽.

15) 박이은실, 『로맨스 자본주의: 소비주의와 사랑의 계급화』, 『여/성이론』 28호(2013); 꿈지모(이윤숙), 「연애 권하는 사회와 자본주의 소비문화」, 『여성과 환경』 36호(2003); 백지연,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부정되는가」, 『창작과 비평』 통권 124호(2004).

인 현상들이 나타났다. 우선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상화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인정하는 냉소적인 태도가 전면에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공일오비의 노래 〈수필과 자동차〉(1992)에는 낭만적인 순수한 사랑의 종말을 예견이라도 한 듯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체념 또한 깔려 있다.

영화를 보곤 가난한 연인 사랑 얘기에 눈물 흘리고 / 순정만화의 주인공처럼 되고파 할 때도 있었지 / 이젠 그 사람의 자동차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고 / 어느 곳에 사는지 더 중요하게 여기네 / 우리가 이젠 없는 건 옛 친구만은 아닐 거야 / 더 큰 것을 바라도 많은 꿈마저 잊고 살지 / 우리가 여태 잃은 건 작은 것만은 아닐 거야 / 세월이 흘러갈수록 소중한 것을 잊고 살잖아 / 버스정류장 그 아이의 한 번 눈길에 잠을 설치고 / 여류작가의 수필 한 편에 설레어 할 때도 있었지 / 이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인지 더 궁금하고 / 해외여행 가봤는지 중요하게 여기네.  
- 공일오비, 〈수필과 자동차〉 -

물질적 제약이나 세속적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신성함을 획득해온 것이 낭만적 사랑의 신화였다면, 〈수필과 자동차〉에서 이러한 신화는 자동차, 사는 곳, 부모의 능력, 해외여행 등에 의해 가볍게 제거된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연인’이나 ‘순정만화의 주인공’ 같은 연인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것들이 낭만적 사랑을 대체하는 시대 또한 1990년대였다. 이 노래가 사랑의 세속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순수한 사랑의 상실을 아쉬워한다는 점에서 더욱 1990년대의 정서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사랑이 물화되어가는 시대유감을 표현하면서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990년대 이전 시대에는 순수한 사랑과 낭만적 사랑 관행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시대나 ‘순수한’ 사랑은 없다. 다만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상향적 추구를 당위적이고 규범적으로 내면화하느냐 아니면 더 이상 이러한 이상향적 추구를 부정하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낭만적 사랑의 운명은 크게 뒤바뀌었다. 고삐 풀린 소비자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산업의 대자본화로 대표되는 후기근대사회에서 사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사랑은 점점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사랑 관행이 부상했으며, 대중매체는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사랑을



낭만화하기에 급급했다. 연애담론이 급부상하고 데이트 방식의 다양화가 진행되었다.<sup>16)</sup> 연인만을 위한 독특한 상품과 소비문화가 확산되어갔으며, 다양한 서사의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가 문화산업계에서도 독자적 장르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 같은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랑 관행의 풍경을 변화시켰다.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된 사랑은 백화점 상품처럼 유행에 민감해졌으며, 연인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데이트 비용의 이면에는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가 요구되었다. 온전한 데이트를 위해서는 노동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즉흥적인 사랑 관행이 확산되는 만큼 수많은 연애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연애담론은 대중적인 연애소설, 여성잡지에 실린 연애상담 코너, 연애코치 전문잡지, 인터넷동호회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지구화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통방식의 대전환으로 사랑방식 또한 크게 변했다. 원격연애가 가능해졌으며, 간접체험으로서의 연애가 시공을 초월하여 이루어졌다.<sup>17)</sup>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인 체험이나 우연적인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첫사랑에도 일말의 전환을 가져왔다. 첫사랑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나아가 첫사랑을 낭만화할 수 있는 기억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전환의 성격을 파악해볼 수 있다. 즉, 첫사랑 자체의 불가능성과 첫사랑을 낭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느긋한’ 현재가 과연 허락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에서 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임슨이 주장하는 후기자본주의적 문화논리를 적용해 보면<sup>18)</sup>, 사랑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허위적이며, 의미와 깊이도 없이 탈신성화된다. 탈신성화된 사랑은 첫사랑의 체험조차 무의미하게 만들고, 첫사랑에 대한 기억작업은 중단되거나 불필요해진다. 점차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포섭되어가는 로맨스는 유행상품처럼 그럴싸한 치장논리에 의지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체는 자신이 경험한 첫사랑을 느긋하게 낭만화하거나 현재의 자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문화적 채널로서 활용하는 실천을 기획할 수 없다. 이 같은 첫사랑 향수의

16) 꿈지모(이윤숙), 앞의 논문, 188-193쪽.

17) 심영희, 「사이버 섹스: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인가?」,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2호 (2005).

18) 프레드릭 제임슨,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자본주의 문화논리」,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1989).

최후는 이창동 감독이 연출한 영화 〈박하사탕〉(1999)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난다.

〈박하사탕〉에서 주인공 영호는 첫사랑 순임의 남편의 부탁으로 찾아간 병실에서 순임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녀에게 박하사탕을 내밀며 ‘미안해요, 순임 씨라며 흐느낀다. 현 시점에서 40대인 영호에게 첫사랑은 1980년대 초, 즉 그가 20대가 되던 해 구로공단 노동자로서 만난 바로 순임이다. 영호가 순임을 처음 만나는 순간은 씁스름함, 순진함, 애뜻함으로 채색되었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겪었던 굴곡진 삶의 과정에서 첫사랑에 대한 기억, 즉 박하사탕으로 표상되는 순수함과 진정성은 잊혀진 지 오래다. 영호는 점차 세속적 삶에 익숙해져가고 스스로 악마 혹은 ‘개’가 되어간다는 생각에 첫사랑(의 대상)과 거리를 둔다. 영호가 고문 경찰관으로 복무하던 시기에 순임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순임이 앞에서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자신의 ‘더러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영호가 보인 이런 추한 행동은 이미 약해져버린 자신의 영혼이 순수한 첫사랑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그의 처절한 거부이자 순임이라는 첫사랑에 대한 이상화를 마지막 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운동하는 청년을 고문하면서 악한 영혼으로 변질되어가는 영호는 순수했던 첫사랑의 상대인 순임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을 시작으로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이때 자살은 처음 순임을 만난 야유회 장소 주변에 있는 철교 위에서 ‘다시 돌아갈래’라는 절규와 함께 다가오는 기차를 마주하면서 행해진다.

〈박하사탕〉의 시공간은 ‘다시 돌아가고픈’ 곳, 순수했던 첫사랑을 만난 청년 시절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시공간은 현재의 주체가 부여하고 의미화한 상상적 세계이다. 공장에서 박하사탕을 하루에 1,000개씩 포장하는 구로공단 노동자(순임)의 고된 삶조차도 낭만화될 수 있는 것은 영호라는 주체가 과거의 시간을 현재적 관점에서 이름답게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영호는 동료들과 있을 때면 줄곧 “꼭 첫사랑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한국적 근대화의 부조리를 담지하고 있는 영호의 삶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파멸한 상황에서 영호가 돌아갈 곳은 ‘그때 그 시절 그곳’이다. 이는 1990년대라는 시간지평 위에서 가능할 법한 기억작업이다. 하지만 영화

는 영호의 마지막을 자살로 끝맺으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를 낭만화할 수 있는 성찰적 주체가 더 이상 가능할 수 있을까? 첫사랑을 낭만화할 수 있는 기억작업 혹은 그러한 느긋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조건은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첫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층을 주체가 성찰적으로 통제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주체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성찰적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하사탕〉은 이러한 성찰적 주체의 비극적인 종말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첫사랑을 낭만화하는 것은 ‘쿨’하지 못한 ‘찌질한’ 일이 되어버렸고, 오랫동안 마주앉아 후일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로도 가치를 상실해버린 듯하다. 2000년대 이후 첫사랑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문제는 사랑이라는 소통방식의 본질적인 변화에서 연유한다. 산업화 이후 더욱 심화된 경제지상주의적 근대화화 문화적 근대화 간의 극심한 괴리, 사랑이라는 친밀성 영역의 식민지화,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불평등 심화, 청년실업 증가, 무한경쟁문화, 불안심리 증폭 등 신자유주의적 사회체제의 전면화는 사랑방식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랑의 계급화’이다.<sup>19)</sup> 이 현상은 계급재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구획화와 맞물려 발생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열정에 토대를 둔 낭만적 사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낭만적 사랑은 상이한 계급들 간의 문화적 실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유될 뿐이다. 에바 일루즈(Eva Illouz)가 밝혔듯이, 로맨스는 계급층위에 따라 상이하게 생산·소비되며, 문화자본의 소유 정도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한다.<sup>20)</sup> 로맨스는 열정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생산·소비되는 상품으로 전환되고, 역으로 상품은 로맨스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처럼 계급적 실천논리에 따라 재구성되는 낭만적 사랑은 순수하고 신성한 체험으로서의 첫사랑을 선택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19) 박이은실, 앞의 논문.

20) 에바 일루즈 저, 박형진·권오현 역, 앞의 책.

사회의 연애와 결혼은 계급재생산 메커니즘과 더욱 연관이 깊어졌다. 친밀성의 영역에서 경제적 부, 학벌·학력, 직장, 부모의 지위 등 외적 요소가 총체적으로 고려되며, 치밀하게 계산되고 효율성 담론이 사랑을 재조직한다.<sup>21)</sup> 인제부턴가 결혼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결혼상대자가 선망하는 연봉수준, 직업, 집 평수, 외모 등이 노골적으로 공개된다. 사랑은 계급적 위계서열에 맞춰 순수함을 달리 드러낸다. 이제 낭만적 사랑에서 요구되는 열정과 순수함은 한 발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세속화된 차가운 열정이 들어섰다.

둘째, 사랑의 물화 혹은 상품화이다. 후기자본주의 사회 혹은 신자유주의적 삶의 규범은 사랑마저도 물화시킨다. 연인들은 상품소비를 통해 서로의 사랑에 대한 확증절차를 거침으로써 관계를 유지시켜나가는 데 익숙해져간다. 로맨스 산업은 연인들이 소비를 통해 관계를 맺고 이를 존속시켜나갈 수 있게 감정지도를 조직한다. 감정지도는 일종의 매뉴얼로 작동하기도 한다. 연애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카운슬러를 방문하고 각종 연애지침서를 보면서 상대방의 호감을 사려는 일련의 노력들은 모두 로맨스 산업에 의해 상품화되어가는 친밀성의 후기자본주의적 운명을 예감한다. 또 다른 예로 지난 20년 동안 급증한 결혼정보회사들은 커플매칭의 요소로 자산·학벌·나이·키·연봉·직업·스타일·성격·집안 등을 점수로 환산한 다음 등급을 부여하여 회원을 차등적으로 관리한다. 로맨스와 열정은 이러한 물적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대중매체로 전파되는 짝짓기 프로그램에서도 위의 요소들은 선제조건이다. 2014년에 중영된 <애정촌, 짝>(SBS)의 경우에도 출연자 대부분은 외적 조건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별된 사람들이다. 계급적 기준에 의해서 선별된 출연자들은 직접 상대 출연자들을 만나고 나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감행한다. 이처럼 피상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세속화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직접적인 사랑 체험의 유예 혹은 불가능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의 출현으로 심화되고 있다. 현재 20-30대 중에서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

21) 정여울, 「사랑의 빈곤, 연애의 풍요를 넘어」, 한순미 외, 『우리 시대의 사랑』,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25-126쪽.

못한 젊은이들, 혹은 문화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갖는 불안감, 즉 삶의 실질적인 지속성(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들의 사랑 관행마저도 바꿔놓았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한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2010)이라는 노래는 그야말로 절망과 체념의 극단을 보여준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여학연수를 떠나고 /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 브로콜리 너마저, 〈졸업〉 중 -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 불안하고 불안정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뿐이다. 물론 이러한 확신은 청년들 제각각이 처한 계급적 위상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치열한 경쟁의 심화, 소득격차의 증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인식만큼은 초계급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한 스펙관리, 학점경쟁, 취업경쟁 등에 열정을 쏟는 것이다. 그 외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는 현실적 자원이나 능력도 장기적 계획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국가가 제시하는 비전에 대한 신뢰는 너무 일찍 무너져버렸고, 반대로 국가권력과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냉소주의와 불신이 세대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다. 이로써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은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하층계급 청년들은 최소한의 낙오자만이라도 되지 않으려는 선에서 생존경쟁에 각자 열정을 쏟는다. 옥상달빛의 노래 〈하드코어 인생아〉(2010)는 청년들의 이 같은 현실을 압축적으로 대변한다. “뭐가 의미 있나 뭐가 중요하나 정해진 길로 가는데, 축 처진 내 어깨 위에 나의 눈물샘 위에. 그냥 살아야지 저냥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사는 오늘. 뒷걸음질만 치다가 벌써 벼랑 끝으로. 어차피 인생은 굴러먹다 가는 뜯구름 같은 질퍽대는 땅바닥 지렁이 같은 걸…….”

이러한 하드코어적 삶에서 사랑 체험의 가능성은 축소된다. 생존경쟁의 압박과 로맨스산업의 소비담론은 전통적인 방식의 사랑 체험을 점차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또한 로맨스산업의 소비담론은 사랑 체험에

소요되는 많은 물적 자원과 문화자본의 양을 점점 늘려간다. ‘돈 없으면 연애도 못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연애무능력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 속도에 맞춰 사랑 체험은 그만큼 유예된다. 이와 동시에 과거를 회고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느긋함’도 상실된다. 생존경쟁의 가속화, 사회복지의 축소,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화 결여, 신자유주의적 체제의 확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세계에서 수행되는 개개인의 기억작업은 점점 불가능해진다.

1980년대 후반 일본 젊은 세대에서 진행된 하류지향, 초식남, 절식남 현상이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sup>22)</sup>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사회인구학적 문제(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고갈 등)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사랑이라는 화두가 멀어지는 현상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랑은 거대한 대중문화산업을 통해 과잉생산됨으로써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수록 사랑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소외의 길을 걷게 된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경, 서로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통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벨 훅스(Bell Hooks)의 주장처럼<sup>23)</sup> 사랑은 주체로 하여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정, 배려, 포용, 인내, 존중, 헌신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 그리고 타인과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고양시켜주는 감정적 실천이다.<sup>24)</sup> 개인의 의지나 세계관에 따라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사랑 체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괴감, 열패감, 수치심, 괴로움을 가져다준다(이러한 예들은 오늘날 흔하다. 한 예로 어느 젊은 남자의 고백을 각주에 제시한다).<sup>25)</sup> 앞서 언급했듯이, 사랑 체험은 타인에 대한 인정아

22)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25-29세, 대졸, 연봉 2,500만 원-3,500만 원, 정규직’ 정도의 자격을 갖춘 남녀가 연애 중인 비율이 높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수준의 정도가 연애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최근 미혼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7월호, 2014). 이와 유사하게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미혼 남성 43.1%가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는 초식남이고, 여성 33.8%가 결혼보다는 독신의 삶을 즐기는 육식녀’라는 보고를 내놓았다(《한겨레신문》, 2013년 8월 21일자).

23) 벨 훅스 저, 이영기 역, 『올 어바웃 러브』(책읽는수요일, 2012), 177쪽.

24) 서용순, 「우리 시대의 사랑, 결혼, 가족」, 『철학논총』 제67집(2012), 181쪽.

25) “우울증에 사춘기를 날리고, 지방 4류대에 들어가 자신감 없는 나날에 친구도 없고,

비투스(recognitive habitus)를 형성하는 과정이자 자신의 인격을 고양시키는 계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영은 자신의 소설 『백수생활백서』에서 주인공의 남자친구인 경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 연애는 소설 속에서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하지도 멋있지도 재밌지도 않았고, 언제나 늘 아주 한심하고 시시했다. [...] 경과 내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건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그의 미래와 내 미래가 아주 무관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나은 관계를 꿈꾸지 않으며, 내가 이 정도를 하면 너도 저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도 없으며, 남들에게 서로를 소개시키지도 않으니 굳이 어떤 관계로 규정을 내릴 필요조차 없다. [...] 경은 성공하고 싶어 하고 훌륭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집안, 학벌, 능력 또한 변변치 않은 경이 성공하는 방법은 이미 성공한 훌륭한 여자나 앞으로 그럴 것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것뿐이다. 경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잘나가는, 돈 많은, 게다가 예쁘고 멋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경의 유일한 꿈이 되었다. 그것 말고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간 말종이라고 말하고 싶으나 나는 경의 그 뻔뻔한 그지없는 솔직함이 싫지 않다.(110) - 박주영, 『백수생활백서』, 110쪽 -

청년백수들에게 연애란 열정적인 로맨스가 결여된 시시한 관계거나 서로에게 기대할 것도 없는 차가운 관계이다. 김혜나의 소설 『제리』(2010)는 사랑이 결여된 청년들의 관계가 얼마나 잔혹하고 사막처럼 황폐한지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삼류 야간대학에 다니는 20대 초반 여성이다.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사회의 낙오자에 다름없는 청년들로 묘사된다. 주인공에게는 강이라

---

여자한테 대시해볼 생각도 못 해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다보니 어느덧 32이네요. 동정은 30살 때까지 애인이 생길길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사창가에서 버렸습니다. 성장기를 잘 못 보내서 주변에 친구 하나 없고, 여친은 어림도 없고, 밤에 집에 오면 야동 보면서 ○○○ 치다가 잠드는 게 곧 일상이었죠. 길가는 커플들 보면서 나는 뭐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맘에 드는 여자들 보면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헌팅도 시도해보고 했는데 어렵도 없었죠. ㅎㅎㅎ 소개받을 곳이 없어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처지에 나도 연애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미처가지고 동호회에 나가도 보고 혼자(!) 나이트에도 가보고 회사에서 보는 여자한테 밀도 깔도 없이 친한 척도 해보고, 그러다보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키스라는 것도 해보고 ㅎㅎ (그것도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난생 처음 데이트도 해보게 되고, 손도 잡아보고 했네요. 하지만 결국엔 여자 마음에 차질 못해서 동네오빠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말로 몇 번 못 만나보고 차이고, 새롭게 시도해볼 기회는 잘 안 보이는데, 내 나이는 벌써 32이나 되고, 얼마간 우울감에 빠져들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네요. 나는 수컷으로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존재인 거 같은 우울감에 자살충동도 느껴졌었습니다.”(MICLUB 게시판 2012년 4월 13일)

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성관계를 맺는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엔조이 파트너’일 뿐이다. 우연히 주인공은 노래방 도우미로 등장하는 제리라는 필명의 남자에게 호감을 갖지만 그와의 관계도 그저 피상적일 뿐이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자신의 육신을 잔혹하게 파괴하는 방식으로 남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려낸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포르노에 가까운 리얼한 묘사가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킬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섹스는 열정도 로맨스도 없이 냉혹하고 때론 야만적일 정도로 비참하다. 한국 사회의 주변부를 떠도는 소설 속 청년들의 일상은 허름한 여관, 술집, 노래방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방 정도를 순환하면서 맴도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에게 섹스는 자학과 자기파괴로 이르는 길에 불과하다. 그들의 이 같은 사랑은 아름답게 기억되지도 낭만화될 수도 없는 잔혹한 실재세계에 마냥 적응하기에 급급한 생존본능에 가깝다. 이들이 보여주는 냉혹한 섹스는 유희나 쾌락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증명일 뿐이다. 다시 박주영의 소설로 돌아와 보자. 다음 인용문에서 경은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삶이라고 주장한다.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기 급급한 동물적 존재는 이성도 감정도 아닌 야성에 기대어 사는 게 훨씬 편한 삶이라는 것이다.

‘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어. 그냥 느낌으로 살아왔어.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 복잡하게 생각 따위를 하지 않은 탓에 실수를 했고 본의 아니게, 아니 어차피 내게 본의 따위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많았어. 그렇지만 나 같은 인간이 생각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경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냥 느낌대로 산다. 생각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사는 데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의 경우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어떤 인간은 이성을 기저로, 어떤 인간은 감정을 기저로 움직인다면, 경은 야성을 기저로 움직이는 인간, 아니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박주영, 『백수생활백서』, 111쪽 -

이 인용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생각 없음’과 ‘야성’이다. 이는 마치 아렌트(Hannah Arendt)가 언명한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sup>26)</sup> 오늘날 한국 사회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체계 내적 합리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성이 증대하면

26) 한나 아렌트 저,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길사, 2006), 349쪽.



서 불확실성만 커져가는 가운데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그야말로 ‘생각 없이 동물적으로 사는’ 삶이다. 이러한 삶의 조건은 앞서 논의했던 사랑에 대한 기억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왜곡시켜버린다. 위에서 인용한 소설이나 노랫말이 표상하는 오늘날 청년들의 삶은 사랑 체험 자체를 거세하는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는 분명 첫사랑이라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재구성할 만한 현재적 여유도 없고 그 능력 또한 상실했다. 정확히 말하면, 첫사랑 향수는 이들의 현재적 삶이나 생존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하지 않는 것 혹은 기억작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데 일조한다. 이들의 냉소는 분명하다. ‘이 시대에 첫사랑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찌질한 짓인가!’

노스텔지어는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거나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노스텔지어는 주체가 기억작업을 통해 과거-현재-미래를 자율적으로 재구성하는 성찰적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노스텔지어의 생성 조건이다. 한편 노스텔지어는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있지도 않았던’ 과거를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그것도 아름답게 존재했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현재나 미래의 욕망을 과거에 투사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위안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래시(Christopher Lasch)에 따르면, 위안메커니즘은 “기억의 퇴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래시는 향수를 ‘과거와 현재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미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sup>27)</sup> 자칫 향수는 예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순진한 복고주의를 불러옴으로써 정치적 보수화를 넘어 문화적 보수화를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수를 기억과 엄밀하게 구분하는 래시는 “향수에서는 기억이 조금도 작용하지 않으며”, “향수가 이상화하는 과거는 불변의 완전성으로 퐁퐁 얼어붙은 채 시간의 바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억은 “현재를 살찌우고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과거에서 희망과 위안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sup>28)</sup>

27) 크리스토퍼 래시 저, 이희재 역, 『진보의 착각』(휴머니스트, 2014), 5쪽.

28) 위의 책, 92쪽.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세대의 '생각 없음' 혹은 생각할 기회의 박탈은 주제로 하여금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기인하는 노스텔지어를 생성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에게 노스텔지어는 불필요한 기억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세대나 사람들에게 노스텔지어는 실재세계를 마주하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현실도피 정도로 비춰질 뿐이다. 그래서 노스텔지어는 구세대의 세상물정 모르는 한적한 놀이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노스텔지어는 반드시 구세대의 한적한 놀이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노스텔지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의 문화적 코드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전체주의로 향하는 징후적 현상이기도 하다. 첫사랑 향수 또한 이전과는 다른 논리로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즉, 사랑 체험이 유예되는 시기에 첫사랑의 운명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복고풍 영화 <건축학개론>과 드라마 <응사>, <응칠>, <응팔> 등이 2010년대에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 2. 과거는 '빨리' 소비된다, 고로 현재는 '빨리' 늙어간다

<건축학개론>과 <응답> 시리즈는 1990년대를 재현하는 이른바 복고풍 영화와 드라마이다.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향수가 서사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복고풍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 곧바로 매체비평이나 미디어 연구들이 뒤따르곤 한다.<sup>29)</sup> 위에서 언급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연구들도 이미 진행된 바 있다.<sup>30)</sup> 그런데 이들 연구는 과거의 재현이나 향수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서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과거를 낭만화하거나 판타지화하여 역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대안적 의미로 향수를 해석하거나 과거를 '현재'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성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봄으로써 향수의 현재성

29) 문계철, 「변화된 시간성과 대중의 정서」, 『대중서사연구』 9권 2호(2003); 최병근, 「〈씨니〉를 통해 본 복고 이미지와 환각적 기호로서의 향수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50호(2011).

30) 김숙현 외, 「〈응답하라 1997〉에 나타난 정서의 구조와 집합기억」, 『미디어, 젠더 & 문화』 26호(2013); 태지호, 「문화적 기억으로서 '향수 영화'가 제시하는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영화 〈씨니〉(2011), 〈건축학개론〉(2012)의 '기억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2013).

을 분석한다. 이들 연구에는 주체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노스텔지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주체가 과거를 성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노스텔지어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틀로서 여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노스텔지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노스텔지어는 개인적 차원에서 쉽게 생성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다. 거대사사의 소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삶의 유동성 심화, 상호작용의 복잡성 증대, 생활세계의 식민화, 디지털문화의 전면화 등의 조건들은 개인에게 ‘느긋한’ 삶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0년대에 등장한 복고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첫사랑 향수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 이 운명의 특징을 앞서 제시한 〈건축학개론〉과 〈응답〉 시리즈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공간적 차원에서 변화된 양태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들 모두 2010년대의 시점에서 1990년대 중반이라는 불과 20년도 채 안 된 시기를 향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최근까지 방영된 〈응팔〉은 2015년을 기준으로 27년 전을 시대적 배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에 비해 좀 더 긴 시간적 격차가 있다. 하지만 〈응팔〉 또한 앞선 〈응칠〉, 〈응사〉와 동일한 서사구조와 감정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어쨌든 이들 모두 2015년 기준으로 30대 후반과 40대 중반에 해당되는 성인들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시절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다. 〈건축학개론〉과 〈응답〉 시리즈는 1990년대를 전후로 한 복고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특히 첫사랑 향수를 기본 서사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건축학개론〉에서 그려지는 첫사랑 향수는 낭만적이고 아련하며 애뜻한 이미지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노스텔지어의 전형성을 띤다. 하지만 작품 속 주인공의 첫사랑은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사랑 향수 담론이 통상 시간적으로는 ‘어린 시절’, 공간적으로는 ‘시골’과 같은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건축학개론〉 속에서 설정된 시공간 구조는 분명 다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첫사랑은 20대(성인)에 그것도 대도시 서울의 신촌이라는 대학가를 배경

으로 행해진다. <건축학개론>이나 <응답> 시리즈 모두, 첫사랑 향수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매우 짧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다. 즉, 이들 텍스트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마치 오래전 일인 것처럼 첫사랑을 낭만화한다. 그렇다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님에도 1990년대는 왜 이렇게 빨리 향수의 대상으로 소환되었을까? 지금의 30-40대는 자신의 20대 초반 시절을 다른 옛 이야기에 왜 그렇게 빠져들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당시의 소품이나 그 시절 소시민적 정감에 대한 감각적인 환기에서 비롯된 즉흥적인 감상에서 찾는다면 매우 탈역사적이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향수를 다룬 복고풍 작품들은 이전에도 충분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1990년대를 회상하는 현재의 주체가 어떤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느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스텔지어는 과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주체가 자신의 원망(願望)을 과거에 투사하여 체험을 재구성해내는 기억작업이라는 점에서 향수는 현재와 미래를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건축학개론>이나 <응답> 시리즈는 첫째, 1990년대(<응답>의 경우 1980년대 후반)를 순수함 혹은 진정성의 시대로 드러내려는 감정구조를 전면에 내세운다. 계산도 이해타산도 없는 순수한 사랑, 가족 같은 친분과 우애, 목가적 공동체성, 고향의 아늑함과 정겨움 등 동화적 휴머니즘이 전체 분위기를 뒤덮는다. <응답>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서는 이해관계로 얽히는 갈등관계나 권력다툼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시리즈를 연출한 신원호 PD(실제로 그는 1975년 서울 태생이자 서울대 출신이다)는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제작의도에 대해 “따뜻한 이야기다. 고향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등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따뜻한 휴먼 코미디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31)</sup> 그 시절 소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그랬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적이지만, 설령 그랬다고 해도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 노스텔지어는 결국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성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텍스트는 1990년대를 그런 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현재적 주체의 욕망과 희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더

31) 『여성동아』 12월호(2013)(<http://woman.donga.com/List/3/all/12/146347/1>).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이 텍스트의 생산자는 1990년대를 그렇게 회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과 권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쟁점을 불러온다.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부류에 속하는 성인들이다. 2010년 현재 이들의 모습은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 전문직, 중산층적 문화취향, 세련된 외모 등을 겸비한 성인들이다. 이렇게 사회의 기득권으로 갖 진입한 사회 초년생의 모습은 평화로우면서 진취적이고 여유롭게까지 보인다. 이들은 어느덧 중산층 신화의 '마지막 주인공'처럼 보인다.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투명한 미래를 보장받는 이들이 구성해내는 첫사랑 향수는 아련하고 애뜻하며 말 그대로 로맨틱하게 다가온다. 드라마의 서사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첫사랑을 낭만화하는 능력은 문화자본과 계급적 위상에 비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30-40대가 자신의 문화자본을 활용하여 20대 시절을 낭만화한 기억작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향수는 현재의 권력과 붙어 다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가 향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30-40대가 가진 일련의 권력이 현실세계에서 행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는 바로 권력효과의 문제이다. 1990년대가 소환된 데에는 2000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확실성, 불투명성, 잔혹성과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중은 “노스텔지어는 소위 돌진적 근대화 속에서 오직 ‘미래’를 향하여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던 유사 군사적 인 삶의 속도가 1990년대 이후 일련의 재난을 통해서 일정 정도 완화되고,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한 전진을 통하여 도달하게 될 미래에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사회적 시선이 회고의 경향을 띠게 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sup>32)</sup>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펼쳐진 모든 사회문화적 풍경은 잔혹스럽다. ‘88만 원 세대’ 논의부터 ‘3포 세대’,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논의까지 이 안에 포함된 노동, 교육, 여가, 결혼, 인권 문제는 모두 생존주의 담론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렸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경쟁만 삶의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버거운 일이다. 이 같은 환경은

32)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통권 77호(2008), 159쪽.

1990년대가 향수의 대상으로 소환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되었다.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고 과거를 성찰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체계에서 1990년대는 ‘오래된 미래’인 양 빠르게 불러들여졌다. 현재의 문화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90년대 대학을 다닌 지금의 30-40대들은 자신의 청춘 시절로 빨리 돌아가서 그때 그곳에서 이룩한 평온을 찾고자 했다. 이 세대가 잔혹한 현실세계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화염병이나 돌멩이도 아닌 상황에서 향수는 적절한 대항기제로 활용되었다. 우리가 희망하던 미래 혹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마치 불과 2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향수는 하나의 대안으로 슬며시 안방극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향수는 문화산업의 자본순환 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소비되었다. 2000년대 신자유주의적 잔혹성에 점점 길들여져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사랑 체험이 어려워진 세대에게 1990년대는 ‘순수하고 풋내 가득한’ 첫사랑이 가능했던 시기로 부활되어야 했다.

### 3. ‘첫사랑’ 산업과 기억작업의 탈감정화

1990년대는 이처럼 빨리 낭만화되고 그만큼 빨리 소비되었다. 그렇다고 첫사랑의 운명이 끝났는가? 첫사랑 향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향수는 ‘느긋한’ 현재가 아니라 문화적 불안과 자본의 유동성을 전제로 등장한다. 첫사랑 향수는 체험이 점점 유예되거나 어려워졌다고 해서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산업을 통해 과잉생산되고 소비된다. 즉, 첫사랑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더욱 활기를 띠고 우리의 감성을 지배하고 있다. 다만 첫사랑 향수는 이전과 다른 형식, 즉 ‘감정산업’을 통해 탈감정적 형식을 갖추고 새롭게 부활한다. 여기서 감정산업은 특정한 감정, 예를 들어 불안, 공포, 슬픔, 고통을 이윤동기로 활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감정적 동의와 공감을 끌어냄으로써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감정산업이 첫사랑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 시대의 첫사랑, 더 나아가 사랑 체험의 결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애와 결혼까지 포기한 세대 혹은 사랑 체험에 둔감해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 체험의 결핍에서 오는 무력감과 공허함을

첫사랑에 대해 가공, 조작되고, 포장된 노스텔지어를 통해 해소하려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첫사랑 체험이 결핍된 세대에게 첫사랑 향수를 불러넣어 주는 탈감정적 양식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산업의 논리, 즉 드라마, 영화, 음악, 복고상품을 통해 실현된다. 실제로 이들 텍스트는 철저하게 계산된 복고주의 문법에 따라 제조된 것이다. 이로써 첫사랑 향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모든 이들을 하나의 감정공동체로 묶어주는 진정성 깃든 상품으로 전환된다.<sup>33)</sup>

연애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문화산업을 통해 되살아난 첫사랑 향수는 다시 신성함을 획득하게 되고 대중은 여기에 열광한다. 이러한 신성함과 열광은 거대한 대중문화산업이 창출한 조작적이고 조직화된 감정, 기계화되고 대량생산되는 노스텔지어적 감정에 토대를 둔 것이다. 메스트로비치(S. G. Meštrović)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현 시대를 “탈감정사회(postemotional society)”로 개념화한다.<sup>34)</sup> 탈감정사회는 베버(Max Weber)의 합리화 테제나 포스트모더니즘론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감정이 퇴조하거나 약화되는 시대<sup>35)</sup> 아니라 반대로 더욱 창궐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때 감정은 진정성으로부터 떨어진 감정이며, 탈역사화·탈맥락화된 감정이다. 메스트로비치는 이를 ‘죽은 감정’이라고 명명한다. 순수한 사랑이 실현되기 어려운 시대에 순수함에 대한 열정은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체험이 아닌 거대한 문화산업의 기계를 통해 발현되고 경험된다. 탈감정주의가 후기근대적 문화구조와 호응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은 거대서사에 대한 회의에 있다. 진보, 발전, 희망, 계몽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복고, 노스텔지어, 문화적·정치적 보수화를 활성화시킨다. ‘이상향적 오아시스가 고갈되면, 진부함과 무력감이라는 사막이 그 위를 뒤덮는다’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지적대로<sup>36)</sup>, 탈감정사회는 진부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둔갑시키고 무력감을 즉흥적으로 위로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

탈감정주의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과거의 죽은 감정으로 대체하거나

33) 실제로 〈응답〉 시리즈는 남녀 전 연령층에서 고른 시청률을 보였다. 《세계일보》, 2013년 11월 18일자(<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5/201311150-04396.html>).

34) 스테판 메스트로비치 저, 박형신 역, 『탈감정사회』(한울, 2014).

35) 프레드릭 제임슨, 앞의 논문, 151-154쪽.

36) 위르겐 하버마스 저, 홍기수 역, 『사회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상향적 활력의 고갈』, 『정치문화현실과 의사소통적 사회비판이론』(문예마당, 1996), 271쪽.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길목을 차단해버린다. 예컨대, 연애가 불가능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연애가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를 엄청나게 쏟아내는 데 있지 않다. 하지만 탈감정주의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첫사랑 향수 또한 개인의 성찰적 기억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것과 대자본의 문화산업에 의해 제조된 것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둘 중 무엇이 더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판가름할 수 없다. 다만 첫사랑 향수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점차 산업복합체를 통해 생산된 상품을 통해서나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탈감정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이른바 탈감정적 장치(postemotional apparatus)를 통해 1990년대는 첫사랑이 가능한 시대이자 첫사랑이 낭만화될 수 있었던 시대로 재탄생했다. 1990년대가 만만치 않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격랑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1990년대라는 시공간은 낭만시대로 탈감정화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산업의 혜택에 힘입어 그나마 첫사랑 향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시대를 비극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행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2000년대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에 달려 있을 뿐이다.

#### IV. 맺음말: ‘늙은’ 베르테르의 고뇌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글은 우선 첫사랑 향수의 생성 가능한 사회적 조건과 그것이 불가능해진 조건을 후기근대적 맥락에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첫사랑 향수가 더 이상 개인의 진정한 체험을 통한 성찰적 기억작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탈감정주의적 논리에 따라 감정산업이 만들어낸 가공된 노스텔지어로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첫사랑 체험은 친밀성의 근대적 전환에 의해 잠재적인 보편성을 갖는다. 즉,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형식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첫사랑 체험은 매우 강렬하고 열정적인 감정 체험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인드에 각인되어 쉽게 잊혀지지 않고 향수로 되살아난다. 한국인들은 첫사랑에 대해 유독 민감한 편이다. 첫사랑이



언제였느냐, 그게 누구였느냐,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느냐, 그 후로 가끔씩 생각은 나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줄곧 소소한 이야기거리로 등장하곤 한다. 근래에는 첫사랑을 찾아주는 검색서비스가 등장해서 여러 이용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첫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또한 끊이지 않고 만들어진다.<sup>37)</sup>

하지만 첫사랑에 대한 이 같은 태도, 즉 첫사랑을 그리워하거나 아련해하고 때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강렬한 열망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조건하에서는 쉽게 생성되지 않는다. 첫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는 점점 길어지고, 그만큼 첫사랑에 대한 기억작업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세대는 첫사랑을 직접 체험이 아닌 대중매체가 제조한 문화상품을 통해 체험하게 되며, 첫사랑 향수 또한 자신의 기억작업이 아니라 문화산업에 의해 가공, 포장된 상품을 통해 가상적으로 수행하게 될 뿐이다. 본론에서 예로 든 〈건축학개론〉이나 〈응답〉 시리즈는 첫사랑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불가능한 시대에 만들어진 탈감정적 텍스트이다. 그런 점에서 2010년대는 1990년대를 빨리 소환해냄으로써 첫사랑 체험을 낭만화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를 지금의 30-40대로 한정해버렸다. 20년도 채 안 된 시절의 이야기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과거는 빨리 소비되었고, 그런 만큼 현재는 빨리 늙어가기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의 거리감이 점차 소멸되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낭만화할 만큼 우리의 기억작업은 성찰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첫사랑은 이제 즉흥만남으로 대체되고, 첫사랑 향수는 구세대의 찌질한 행태가 되었다. 오늘날 첫사랑은 어린 시절에도 10대 시절에도 어찌면 20대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수 있고, 체험을 하더라도 낭만화할 수 없는, 오히려 낭만성을 부정하는 게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젊은’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슬피하고 고뇌하는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다. 피테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그는 ‘늙은’

---

37) 이 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첫사랑 향수에 대한 젠더적 차이이다. 첫사랑 향수를 낭만화하는 기억작업이 여성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친밀성의 구조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과 권력관계가 과거의 경험을 서사화하는 현재의 주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여성적 시각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사랑 향수에 관한 젠더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베르테르의 고뇌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베르테르는 꽤 나이가 들어서나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예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늙은 베르테르는 자신의 직접적인 사랑 체험에서 오는 강렬한 열정보다는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시뮬라크르화된 대상에 열정적 사랑을 보내고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해서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핍은 자기 내면의 고독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대한 문화산업이 그려놓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그만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은밀하면서도 자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베르테르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젊은 베르테르는 스스로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 자살을 택했다. 그의 자살은 사랑의 송고함에 궁극적으로 도달함으로써 전통적인 사랑 규칙을 전복시킨 진정성의 체험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늙은 베르테르는 첫사랑 자체의 불가능성에서 오는 고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탈감정화된 사랑 체험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오는 공허함과 자괴감을 견뎌내지 못해 자살을 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늙은 베르테르는 첫사랑을 드라마나 영화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의 첫사랑 향수는 그러한 매체가 구축해놓은 매트릭스 안에서나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늙은 베르테르는 첫사랑을 낭만화하거나 그리워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향수에 젖게 됨으로써 감정적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정보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날로 진화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과거와 현재를 순식간에 넘나들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구축했다. 사람들은 첫사랑의 대상을 단 몇 초 만에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첫사랑은 과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아귀에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제 성찰적인 기억작업은 뒤로 물러나고 인터넷에서 첫사랑 상대를 즉물적으로 찾는 것이 우선시된다. 실제로 첫사랑 찾기 앱과 사이트들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sup>38)</sup> 이는 향수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38) 《동아일보》, 2012년 4월 25일자. “〈건축학개론〉…… 영화 열풍과 함께 ‘첫사랑 찾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오늘부터 사람찾기’ 앱도 출시된 지 19일 만에 22만 명이 내려 받았다. 현재까지 이 앱을 이용해 1만 1,950명이 첫사랑과 재회했다. 이 앱을 개발한 켈블더의 이성암 대표는 “첫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직접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앱”이라며 “입력한 상대방의 기본 정보가 일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찾기’에 대한 열정이다. 이로써 첫사랑 향수는 개인 자신만의 고독한 내면세계에서의 성찰적 기억작업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곧바로 소비되어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노스텔지어에의 차가운 열정이 낳은 후기근대의 문화적 비극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사랑이 펼쳐질 것인가.

---

설명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찾을 때만 연결된다는 것이다. 첫사랑 찾기 열풍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거세다. 첫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첫사랑 찾기 사이트’에는 게시글이 쇄도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게오르그 짐멜 저, 김덕영 역, 『개인법칙』. 길, 2014.
-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2014.
- 김숙현·장민지·오지영, 「〈응답하라 1997〉에 나타난 정서의 구조와 집합기억」.  
『미디어, 젠더 & 문화』 26호, 2013, 5-40쪽.
- 김혜나, 『제리』. 민음사, 2010.
- 김홍중,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제77호, 2008, 139-168쪽.
- 꿈지모(이윤숙), 「연애 원하는 사회와 자본주의 소비문화」. 『여성과 환경』 36호,  
2003, 182-195쪽.
- 문재철, 「변화된 시간성과 대중의 정서」. 『대중서사연구』 9권 2호, 2003, 64-87쪽.
- 박이은실, 「로맨스 자본주의」. 『여/성이론』 28호, 2013, 32-58쪽.
- 박주영, 『백수생활백서』. 민음사, 2006.
- 백지연,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부정되는가-이만교와 정이현」. 『창작과 비평』  
통권 124호, 2004, 131-143쪽.
- 벨 훅스 저, 이영기 역, 『올 어바웃 러브』. 책읽는수요일, 2012.
- 서용순, 「우리 시대의 사랑, 결혼, 가족」. 『철학논총』 제67집, 2012, 165-187쪽.
- 송경동, 『끝잠』. 삶이 보이는 창, 2011.
- 스테판 메스트로비치 저, 박형신 역, 『탈감정사회』. 한울, 2014.
- 심영희, 「사이버 섹스: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인가?」.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2호, 2005, 101-133쪽.
- 앤서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  
결, 1999.
- 에바 일루즈 저, 박형신·권오현 역,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이학사, 2014.
- 위르겐 하버마스 저, 홍기수 역, 「사회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상향적 활력의 고갈」.  
『정치문화 현실과 의사소통적 사회비판이론』, 문예마당, 1996.
- 이안 버킷(Ian Burkitt), 「복합감정: 감정경험의 관계, 느낌, 이미지」. 책 바바렛  
읽음,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287-288쪽.
- 임철규, 『귀환』. 한길사, 2009.
- 정여울, 「사랑의 빈곤, 연애의 풍요를 넘어」. 한순미 외, 『우리 시대의 사랑』,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조성호, 「최근 미혼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7월호, 2014, 14-23쪽.
-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  
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제88집, 2010, 307-344쪽.
- 지그문트 바우만 저, 이일수 역, 『액체근대』. 강, 2009.

- 차승기, 「동양적 세계와 '조선'의 시간」.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2006.
- 최병근, 「〈씨니〉를 통해 본 복고 이미지와 환각적 기호로서의 향수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50호, 2011, 543-562쪽.
- 크리스토퍼 래시 저, 이희재 역, 『진보의 착각』. 휴머니스트, 2014.
- 태지호, 「문화적 기억으로서 '향수 영화'가 제시하는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영화 〈씨니〉(2011), 〈건축학개론〉(2012)의 '기억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2013, 417-440쪽.
- 프레드릭 제임슨,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자본주의 문화논리」.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터, 1989.
- 필립 아리에스 저,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 한나 아렌트 저,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 국 문 요 약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첫사랑에 대한 향수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지닌 후기근대적 의미를 밝혀보는 데 목적을 둔다. 첫사랑은 근대화 과정에 따른 친밀성의 변화와 깊은 구조적 연관성을 갖는다. 개인화와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표상되는 근대화는 첫사랑 체험의 사회적 조건이자 동시에 첫사랑에 대한 향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근대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첫사랑 체험을 회고해볼 수 있는 성찰적 기억작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위기는 첫사랑과 그에 대한 향수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후기근대적 사회구조는 직접적인 사랑 체험을 점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첫사랑 향수의 불가능성 또한 야기했다. 그럼에도 첫사랑 향수는 새로운 문화산업(감정산업)에 의해 탈감정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복고주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필자는 첫사랑 향수는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문화산업이 제조한 탈감정화된 텍스트를 통해 체험될 것이고 이런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노스텔지어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고일** 2015. 12. 31.

**심사일** 2016. 1. 17.

**게재 확정일** 2016. 2. 25.

**주제어(keyword)** 첫사랑(first love),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향수(nostalgia), 속도(speed), 기억작업(working for memories), 후기근대(postmodernity), 탈감정주의(postemotionalism), 감정산업(emotional industry)

## Abstracts

### Postmodern Destiny of 'First Love' and 'Cold' Passion for Nostalgia **Joung, Su-nam**

Focusing on nostalgia for first love in Korean societ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ostmodern meanings which it implies. First love structurally has a relation with transformation of intimacy caused by modernization. Modernization representative of individualization and complex interactions is a social condition to capable of having a experience first love and also nostalgia for it. And modernization enabled a lot of people to conduct reflexive workings for memory on one's own experience for first love. But different social crises makes first love and nostalgia for it difficult to experience after modernization. Postmodern social structure makes a lot of people, especially young people themselves unable to experience love directly and also provokes impossibility to nostalgia for first love. Nevertheless, nostalgia for first love comes to be recreated by new culture industry(emotional industry) in the way of postemotionalism. In the aftermath of such industry a lot of retro trend drama and movies are produced and gain much popularity with people. As a result, I suggest that nostalgia for first love would be experienced by postemotional texts that culture industries produce, rather than conducted by individual's own experience and thus people will response to nostalgia passionately more than ever.